

# 진도 '그림' 텃자리에서 진도 '소리' 울림따라 걷다

##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 서해랑길 8코스

운림산방이 연두색 신록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살아 숨쉬는 수채화 같다. 운림산방 앞 연못에 서 있는 배롱나무는 아직 새잎을 내지 않았다. 다른 나무의 잎이 다 나온 후에야 배롱나무는 잎을 내밀고, 한여름 1백일 동안 우아하게 꽃을 피울 것이다.

운림산방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진도의 대표적인 사찰 쌍계사가 자리했다. 우회로 앞에 서서 바라보니 정면에 대웅전, 오른쪽에 시왕전, 왼쪽에 원통전이 자리했다. 대부분의 담우가 맞배지붕을 하고 있고, 사찰의 건물도 크지 않아 포근하게 느껴진다.



운림산방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쌍계사. 쌍계사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998호).

쌍계사는 작지만 아름다운 절이다. 쌍계사대웅전에는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998호)이 모셔져 있다. 석가모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이 협시하고 있다.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께 삼배를 올리고서 쌍계사를 나선다.

의신전변에 자리한 사천마를 돌담길이 정겹다. 사천마를 골목길을 지나자 진도 운림예술촌이 기다리고 있다. 운림예술촌은 문화예술인이 교류하고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한옥의 운림예술촌은 카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핸드드립 커피체험과 진도아리랑, 남도민요, 진도북놀이 배우기 등 국악체험을 할 수 있다.

운림산방으로 가는 2차선 도로를 넘어 임도로 접어들다. 활엽수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임도 주변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했던 참나무들이 많다. 신록으로 뒤덮인 숲은 싱그럽다. 연둛빛 신록숲길을 거닐고 있으니 변화하는 계절의 신비가 가슴으로 느껴진다.

임도를 벗어나 중리저수지를 지나자 너른 들과 마을이 자리했다. 대부분의 논은 휴지기를 보내며 모내기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종종 만나는 청보리밭에서는 보리가 익어가고 있다. 옥대마을 입구 벽에 그려진 거대한 동백나무에 매달려 노는 아이들의 그림이 천진난만하다.

의신면소재지에는 '돌아온 백구상'과 돈지백구테마센터가 있다. '돌아온 백구'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1993년 3월에 진도의 한 백구가 대전지역 예견가에게 팔려갔는데 같은 해 10월, 7개월 만에 산 넘고 물 건너 300km 넘는 거리에 있는 진도의 원주인에게로 돌아온 이야기가 그것이다.



운림산방이 연두색 신록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살아 숨쉬는 수채화 같다.



남도국악원 앞에서 바라보면 귀성마을. 아래쪽에 만입된 해변과 포구가 포근하게 내려다보인다.

진도군에서는 감동적인 백구의 일화를 기리고자 백구상과 백구테마센터를 세웠다. 들판을 지나 만길재로 올라서는 임도에 들어서자 조그마한 돌뎡 하나가 눈에 띈다. 삼별초공녀돌뎡이다. 고려시대 삼별초가 추대했던 왕족 출신 왕은이 여몽연합군에 붙잡혀 죽자 피난 중이던 공녀들이 몽고군에게 붙잡혀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자 이곳 돌뎡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만길재를 넘어 만길리로 통하는 농로를 따라간다. 주변은 해발 200m 내외의 아산들이 솟아있고, 아산 사이사이에 넓지 않은 논밭과 마을들이 자리했다. 아산자락에 자리한 만길리 마을에도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 봄의 생명력이 넘쳐흐른다.

원두리를 지난 서해랑길은 송정저수지로 이어진다. 저수지 건너편 아산자락에 자리한 폐교된 의신초등학교 명금분교장이 바라보인다. 남쪽에서는 송정마을이 저수지를 앞마당 삼아 동지를 틀었다. 송정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자 의신면소재지에서 이어져온 18번 국도가 지나간다.

마을 주변 농경지에는 보리와 대과가 자라고 있는 가하면, 다른 농작물을 심기위해 밭갈이를 해놓은 밭도 있다. 농경지 아래로 밤금 지나온 송정저수지가 바라보인다. 서해랑길 8코스를 걷다보면 해발 100m 내외의 낮은 고개를 여러 개 넘는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개이자 농사일을 하기 위해 넘나들었던 고개들이다. 고갯마루를 넘으면서 뒤돌아보면 지나왔던 마을과 들, 아산들이 정답게 다가온다. 포근하고 온화한 정경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까지도 닮

아가게 한다. 무지개재라는 불리는 고갯마루를 넘어서자 오늘 처음으로 바다가 바라보인다. 농경지 아래로 죽림해변이 펼쳐지고 접도와 동한향 안쪽으로 만입된 바다가 잔잔하게 다가온다.

의신면 금갈리에서 연도교가 놓여있는 접도에는 남망산이라는 아기자기한 산이 솟아있다. 접도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바다에는 상구자도·하구자도 같은 작은 섬들이 떠있다.

해변을 따라 길쭉하게 죽림리 강계마을과 동헌마을이 자리했고, 해변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온다.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는데, 이곳 갯벌에서는 개매기체험, 조개잡이체험 같은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해변에는 죽림어촌체험마을 건물이 있고, 카페와 갤러리도 자리했다.

죽림마을을 바라보며 농로를 따라 걷는데 마을 뒤로 여귀산(458m)이 우뚝 솟아있다. 여귀산은 진도에서 침찰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자 진도 남서지방을 아우르는 산이다. 죽림마을에는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이 있다.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다. 이처럼 진도에는 문화예술의 고장답게 박물관과 미술관, 국악원 같은 시설이 곳곳에 들어섰다.

여귀산은 남쪽해변으로 여러 개의 산줄기를 뻗어 내렸는데, 산줄기와 산줄기 사이 골짜기에 농경지와 마을들이 자리했다. 죽림마을과 탐림마을, 귀성마을이 그러하다. 죽림마을을 지나 강품미재를 만난다. 강품미재는 여귀산 줄기가 남쪽 오봉산으로 뻗어나가는 중간지점에 있다.



의신면소재지에는 '돌아온 백구상'과 돈지백구테마센터가 있다.

서해랑길은 강품미재에서 오봉산 방향으로 임도를 따라간다. 오봉산 정상은 200m 앞두고 귀성마을로 내려선다. 귀성마을에는 아리랑마을관광지가 조성돼 있다. 여귀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장구모양의 2층 체험관이 있다. 아리랑이 가진 따뜻하고 그리운 정서가 잔잔하게 스며들었다.

귀성마을 아래쪽에 만입된 해변과 포구가 포근하게 내려다보이고, 먼 바다는 망망대해를 이뤄 아득하다. 18번 도로 위쪽에 여귀산을 등지고 국립남도국악원이 자리했다. 운림산방이 진도 '그림'의 텃자리라면, 이곳 국립남도국악원과 아리랑마을관광지가 있는 귀성마을은 진도 '소리'의 현주사다.

2004년 7월 7일 개원한 국립남도국악원은 1400여 년을 이어온 국가음악기관인 국립국악원의 분원이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국악연수, 공연, 체험, 학술연구, 굿음악축제 등 국악을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국립남도국악원 근처 서해랑길 8코스 중점에 도착하니 다도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관소리처럼 들려온다. (장갑수·여행작가)



농경지 아래로 죽림해변이 펼쳐지고 접도와 동한향 안쪽으로 만입된 바다가 잔잔하게 다가온다. 의신면 금갈리에서 연도교가 놓여있는 접도에는 남망산이라는 아기자기한 산이 솟아있다.



죽림해변은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이 드러나는데, 이곳 갯벌에서는 개매기체험, 조개잡이체험 같은 갯벌체험을 할 수 있다.

**※여행쪽지**

▲서해랑길 8코스는 진도 '그림'의 텃자리 운림산방에서 진도 '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국립남도국악원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여정이다. 진도의 들과 마을에 스며있는 소박한 정서와 문화를 만나고, 갯벌이 있는 해변마을과 진도 남쪽 다도해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다.

※코스 : 운림산방주차장→운림예술촌→중리경로당→돈지백구테마센터→송정저수지→죽림어촌체험마을→강품미재→귀성삼거리(국립남도국악원)

※거리, 소요시간 : 23km, 7시간 소요

※출발지 내비게이션 주소 : 운림산방주차장(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84)